

방위산업

Sector Issue Brief

2025.7.3

폴란드 K2전차 2차 계약 확정 코멘트

Check Point

- K2 전차 2차 계약 180대 확정
- 동유럽 시장 확보에 필수적인 2차 계약
- 증가하는 방산부문 설비 투자

| Analyst **최정환** CFA | jhchoi@ls-sec.co.kr

기본계약 1,000대 중 2차 계약 180대 인도 예정

방위사업청, 24년 말부터 지연되던 폴란드향 K2전차 2차 계약 확정 발표. 공식적으로 계약규모가 공개되진 않았으나 8.5-9조원 사이, 국내 생산 120대, 현지 생산(K2PL) 60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 계약 규모 고려 했을 시 K2PL 대당 단가는 1차 계약 물량인 캡필러 사양보다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인도일정: 25년 잔여 1차계약 물량 인도, 26년부터 2차계약 국내 생산분 인도 이후 K2PL 폴란드 현지 생산 전망

동유럽 시장 확보에 필수적인 2차 계약 체결

금번 2차계약 체결 의미는 크게 2가지. 1) 가격 경쟁력 강화 2) 현지생산 3) K2PL 사양 개발 및 양산

1) **가격 경쟁력 강화:** 현재 폴란드 뿐 아니라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로 K2전차 수출 기대 중, 이를 위해선 단가 경쟁력이 필수. 통상 수주 계약에 단순 납품 뿐 아니라 MRO 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전세계 운용 대수 많아질수록 수출에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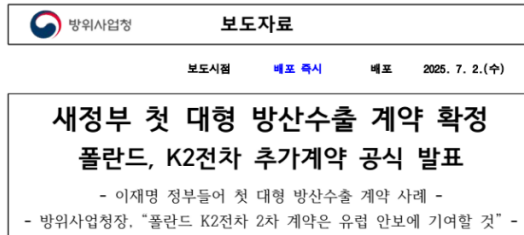
2) **현지생산:** 폴란드는 K2전차 대량 도입 및 현지생산을 통해 자국 방위산업을 성장시키고 현지 생산한 부품을 K2전차를 운용할 타 동유럽 국가들에게 판매하는 등 전략 구상 가능. 폴란드 K2전차 도입 대수 증가는 타 동유럽 국가향 수출 가능성 증가와 동일한 의미를 지님

3) **K2PL 사양 개발 및 양산:** K2PL에는 능동방호장치(APS) 및 드론 재머 등 각종 사양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데 러-우 전쟁 이후 대전차무기, 드론의 효용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K2PL 사양을 원하는 국가가 다수. K2PL 개발에 돌입하게 되면서 수출 경쟁력 또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증가하는 방산부문 설비 투자

국내 K2전차 4차 양산 및 동유럽/중동 등 다수의 국가들로 수출이 기대되는 중. 방위산업에서는 설비투자가 보수적으로 이뤄지는데 25년부터 계획된 방산부문 설비투자의 급격한 증가는 K2전차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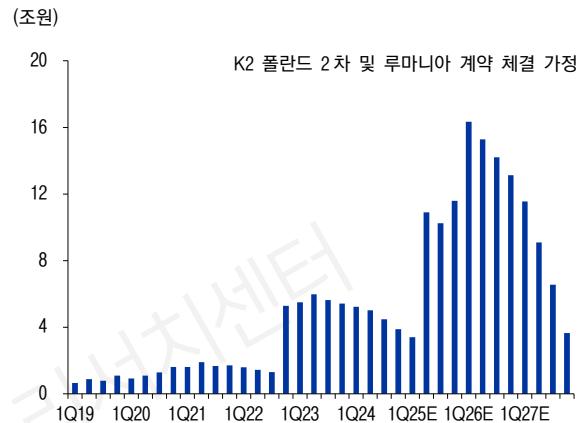
그림1 방위사업청,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확정 발표



현지시간 7월 2일(수)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슈(Władysław Kosiniak - 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 체결식은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으로, 양국은 계약체결식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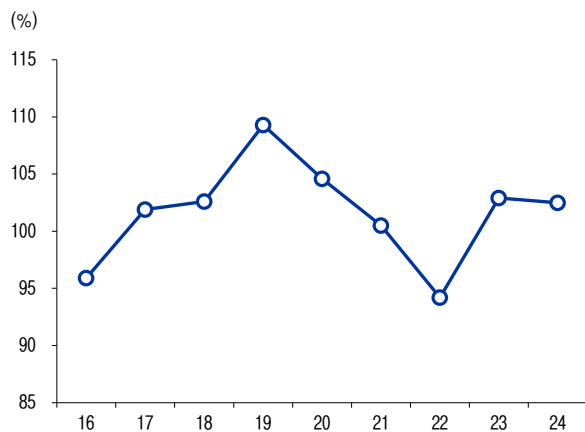
자료: 방위사업청,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현대로템 수주잔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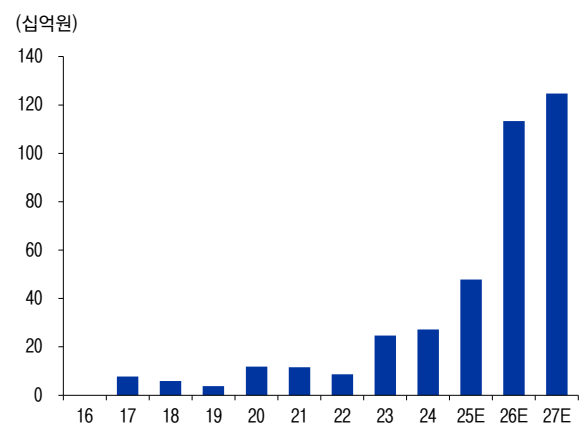
자료: 현대로템,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현대로템 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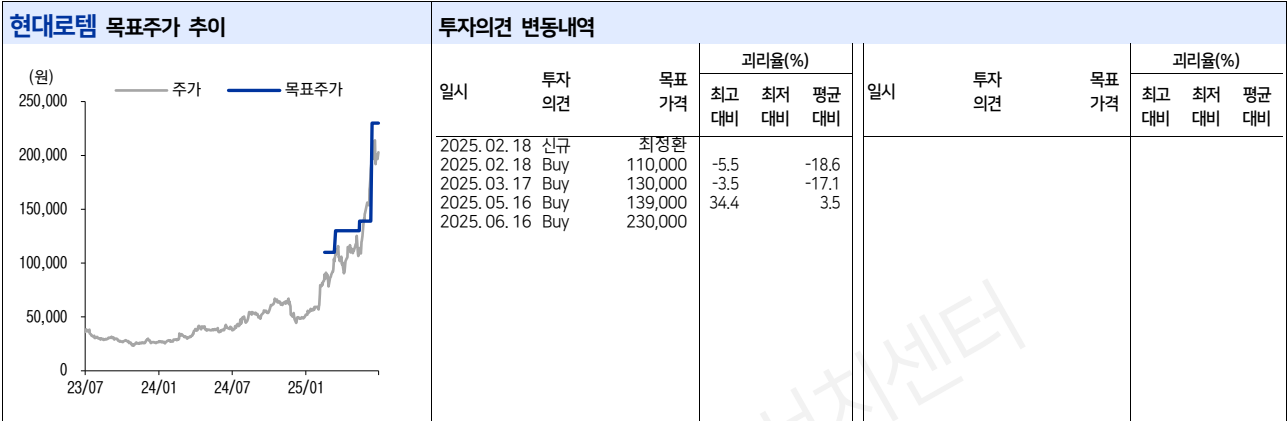


자료: 현대로템,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현대로템 방산부문 설비투자 계획



자료: 현대로템,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정환).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89.2% 10.8 % 100.0%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투자의견 비율은 2024. 7. 1 ~ 2025. 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